



공존의 가치를 속삭이는 태초의 이야기

김선자 지음

출간일 : 2012년 12월 5일

정가 : 15,000원

페이지 : 292쪽

곡식의 영혼이여, 그대가 왕입니다.
곡식의 영혼이여, 그대가 주인입니다.
한 톨의 곡식은 천 냥의 황금보다 소중한,
한 알의 곡식은 만근의 은보다 중요하지요
인간이, 생명이 그대들에게 기대고 있어요

다이족의 <곡식의 영혼을 부르는 노래>

신화학자 김선자, 10년의 취재와 답사

세계의 변방에서 길어 올린 위대한 인류의 지혜

책은 동아시아 땅에 전해오는 신화와 그 가르침을 지켜오고 있는 소수민족 삶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전한다. 인간의 근원적 탐욕이 드러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달리 동아시아 신화에서는 꽃에서 아이가 나고, 나무가 사람을 키우고, 뱀이 물어다준 곡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때로 자연을 정복하려고도 하지만 자연의 호된 가르침을 통해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운다. 여기에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그들이 깨친 '공존'이라는 생존의 방법이 녹아 있다. 책은 더 나아가 이러한 신화의 가르침을 제의와 관습을 통해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삶을 보여주며 독자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 누가 더 우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연을 노래한 신화와, 그 신화의 가치를 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 신화학자 김선자, 이야기에 담긴 옛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하다.

고대 사회의 마을에는 지혜로운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야기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어두운 밤에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혹은 한낮의 물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듣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싹을 하나씩 틔웠다.....어떤 것이 진정 소중한 가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방향을 알게 해주는 빛나는 별이 되기를 기대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국내외에서 동아시아 신화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저자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동아시아 소수민족들의 땅을 찾아가 숨은 신화를 발굴하고 있다. 그리스로마신화는 신의 이름 몇몇은 금방 떠올릴 정도로 익숙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 나라들의 신화는 오히려 생소하다. 하지만 동아시아 곳곳에도 신화는 흐르고 있으며, 신화의 가르침을 제의와 풍습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매료되어 저자는 벌써 10년째 취재와 답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을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청하고, 조상신께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한 해 농사를 위해 곡식의 영혼을 달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말이다. 저자는 '신화에는 옛 사람들이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꼽는다. 바로 '공존'이다. 책은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동아시아 소수민족 신화를 통해 우리가 잊어버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존의 가치를 일깨운다.

2 이들의 신화에서는 나무에서 아이가 나고, 마을을 위해 희생한 청년의 몸이 초원이 된다.

2-1. 공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한 생존 본능

옛날 년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강물에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병에 걸렸다. 참기 힘든 가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를 긁었고, 피부가 짓물러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게 되었다. 그때 망기라는 요마가 그 물의 독을 다스릴 수 있는 해독초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용담이라는 다우르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해독초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요마를 찾아간 청년은 천신만고 끝에 해독초를 갖고 돌아왔지만, 년강 근처에서 그만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청년의 몸은 이미 년강 초원으로 변해 있었고, 청년의 몸에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용담초가 자라났다.

-9장 '돌도 옮기면 사흘을 아파한다'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간의 근원적 탐욕이 투영되어 있다면, 이 이야기들은 만물의 의미를 찾고 자연의 소중함을 노래한다. 저지는 그 이유를 소수민족들이 사는 거친 환경에서 발견한다. 땅을 함부로 파헤쳤다가는 그나마 있는 풀도 죽고 마는 초원. 폭우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가파른 산 속. 그런 환경 속에서 늘 하늘과 땅을 살펴보고 살아야 했던 옛사람들은 '공존'이 곧 가장 현명한 생존방식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들의 신화에서는 나무에서 아이가 나고, 마을을 위해 희생한 청년의 몸이 초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흐르는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을 뒷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되고, 초원의 땅을 파헤치거든 꼭 다시 흙으로 덮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덕분에 숲이 내려주는 물이 마르지 않고, 초원은 아직 푸르다. 그들에게 신화는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오래된 지혜인 것이다

2-2 신의 후예들이 사는 법

동족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삼나무를 100그루쯤 심는다. 딸이 자라서 혼인할 때 베어 쓰려는 것이다. 이것을 '딸의 삼나무(여아삼女兒杉)라고 부른다. 하지만 삼나무를 베어야 할 때에도 아무 때나 막 베지 않는다. 그들은 삼나무를 산신의 옷이라고 생각한다. 산신의 옷을 함부로 벗길 수 있겠는가. 만물이 싹트고 자라는 계절에는 나무를 베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인 5~6월이 되면 나무를 벨 준비를 한다. 물론 베기 전에는 산신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

-6장 '숲과 인간이 동시에 길을 잃으면' 중에서

책은 신화의 가르침을 다양한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 소수민족의 오늘의 모습에도 주목한다. 이들의 생활 방식과 제의는 물론, 옷가지나 장신구 하나하나에도 그 가르침이 새겨져 있다. 중국 윈난성의 척박한 산지에서 살아가는 '동족'은 딸을 낳으면 삼나무를 백 그루쯤 심는다. 삼나무로 집을 짓는 이들은 이렇게 그 숲을 유지한다. 같은 지역의 '외족'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항상 곡식의 영혼을 달래는 노래를 부른다. 벼농사로 먹고 살아가는 이들의 신화가 곡식을 귀히 여기라고 일러주는 까닭이다. 그런가 하면 물이 귀한 산지에 살며 물을 신성시하는 신화를 가진 하니족의 목에는 물고기 모양의 은목걸이가 걸려 있다. 이처럼 이들에게 신화는 다만 옛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이야기다.

3. 오래된 이야기에서 찾은 내일의 답

: 신화, 욕망에 쫓기는 현대인의 거울이 되다

와스코 사냥꾼도 그의 수호신인 사슴 덕분에 사냥을 잘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사슴의 말을 잘 따랐다.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 사냥하는 짓도 하지 않았다. 사냥감이 너무 적다고 질책하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청년은 함부로 동물을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사나운 사냥꾼으로 변해갔고, 자신의 수호신인 사슴까지 잡으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슴을 따라 호수 밑바닥까지 내려간 청년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그가 사냥한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이 되어 호수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17장 '뒤를 돌아보면 답이 있다'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망에 쫓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아시아 신화와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사는 삶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누가 더 우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자는 인식의 변화 없이 해결 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말하며, '이야기'에는 인식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신화에 담긴 생태 관념과 인간상을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이다.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 답이 있다. 어릴 적 듣던 옛 이야기처럼 살갑고 포근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